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전략 연구

The Contribution Strategy of Public Library to Local Cultural Development in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I. 서론	2. 디지털 정보해득력 교육·지원기능 강화
II. 공공도서관과 지역문화발전의 상의성	3.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촉진 및 저변 확장
1. 지역문화의 개념과 범주	4.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제공서비스의 최적화
2. 도서관의 정체성과 지역문화발전	5. 시설·공간의 개방화 및 친숙성 증대
3.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와 한계	6.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 확대
III.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 방안과 전략	IV. 요약 및 결론
1. 핵심역량(장서개발·이용서비스)의 전략적 제고	

초 록

이 연구는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지역문화발전의 상의적 수수관계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평가하고 한계를 적시하였다. 이어 공공도서관과 밀접한 지역문화를 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대중문화, 여가문화로 구분하고 이들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기여전략(장서개발과 이용서비스 중심의 핵심역량 제고, 디지털 정보해득력 교육·지원기능 강화,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촉진과 저변확대,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제공서비스의 최적화, 시설·공간의 개방화 및 친숙성 증대,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 확대)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문화기반시설, 지역문화, 지역문화발전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contribution strategies of public library as cultural infrastructure to local cultural development in Korea. For this goal, researcher evaluated how public libraries contribute to the local cultural development in terms of interdependence of public library and local culture. Then, the researcher divided into the local culture to knowledge culture, reading culture, learning culture, living culture, and leisure culture, and suggested six contribution strategies (improving core competencies including the collection development and user service, strengthening education and support for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reading promotion and base expansion for everyday life, optimization of lifelong learning & culture program services, increasing openness and friendliness of the facilities and space, expansion of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of public library for their development and promotion.

Keywords: Public library, Cultural infrastructure, Local cultur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논문접수: 2015년 9월 22일 •최초심사: 2015년 11월 24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1-20,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12.1]

I. 서론

지난 60년간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고도 압축성장을 계속하였다. 이에 따른 경제적 상위 지수(세계 교역규모 9위, GDP 13위 등)가 물질적 풍요를 대변한다면 사회적 하위 지수(자살률·저출산율·교통사고 사망률·노인 빈곤율 1위, 부패·행복·복지·기부 등의 최하위 수준)는 정신문화적 빈곤을 대표한다. 이러한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극단적 격차는 도처에서 정치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후진국형 병리현상을 양산하고 있다.

그래서 현 정부는 한국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해소하고, 한국인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치유하기 위한 전략적 키워드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통한 문화융성'을 채택하였다. 정부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더불어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로 천명한 것은 문화가 국민 삶과 행복에 후순위 부차적 요소가 아닌 선순위 핵심영역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방증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2013년 10월 문화융성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문화의 기초체력이라 할 인문학과 전통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 인간의 창조적 능력은 삶의 근본에 대한 고민과 앞서간 문화에 대한 존경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인문적 전통적 가치를 활성화시키고 일상생활에 인문정신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역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융성 시대를 위한 8대 정책과제(인문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 생활 속 문화 확산,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예술진흥 생태계 형성, 창의 문화산업의 방향성 제시, 국내외 문화적 가치 확산, 국민통합 구심점으로서의 '아리랑' 활용)이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은 문화융성 정책과제 가운데 '인문정신의 가치정립과 확산, 생활 속 문화확산,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역문화발전이 단초 내지 토대로 작용하는 문화융성이 국정비전인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에 위치할 때 지역문화를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비록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을지라도 '인본주의에 입각한 문화적 성숙'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려면 지역사회의 무수한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고 요체에 속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국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기여방안이나 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와 지역문화발전의 상의적(相依的) 수수관계(授受關係)를 바탕으로 현재적 기여 및 한계를 적시한 후에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센터, 디지털 정보게이트웨이, 문화기반 및 평생학습시설, 커뮤니티센터, 문화유산기관으로서의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공공도서관과 지역문화발전의 상의성

1. 지역문화의 개념과 범주

어느 누구도 문화(culture)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 만큼 다의성, 다양성, 총체성을 함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어인 ‘colere’(경작하다, to cultivate)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여러 학자 중 문화를 정의한 대표적 인물인 테일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습득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기타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총체, 즉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로 규정하였다(Taylor 1871, 1). 유네스코는 “사회 및 사회집단의 특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집합을 말하며, 예술과 문학형식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공동체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UNESCO 2007). 이를 수용한 「문화기본법」 제3조도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과 문화의 합성어인 지역문화(community or local culture)는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2354호) 제2조 제1호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지역문화는 문화의 보편적 개념에 지역을 선치시킨 용어로서 ‘행정구역 내지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표 1〉 지역문화자원의 범주와 세부 항목

범주		세부 항목과 해당시설
역사·전통 문화	문화재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근대문화유산 등
	종교시설	전통사찰, 교회, 성당 등
	전통문화자원	전통마을, 서원, 당산, 전수시설, 민속예술보존회, 설화, 민요 등
공연·문예 문화	공연예술자원	공연장, 공연기획사, 공연예술활동, 공연예술 단체 및 관련 교육시설 등
	시각예술자원	미술관(화랑), 조각공원, 창작스튜디오, 시각예술 단체 및 관련 교육시설 등
	문학예술자원	문학관, 문학예술 단체 및 관련 교육시설 등
지식·학습· 독서·생활문화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시민회관, 복지회관, 사회문화교실, 청소년문화존 등
	편의(편익)시설	공원, 체육시설, 동식물원, 수련시설(수련원, 야영장) 등
대중·축제· 여가문화	문화지역	서점거리, 문화거리, 문화단지, 문화벨트 등
	문화공간	극장, 예술공간, 대안문화공간, 청소년문화존 등
	문화축제	지역축제(민속, 문화예술, 관광특산) 등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4호)

이러한 지역문화에는 지역(향토)적 예술, 지역주민의 문화와 여가생활,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시설과 공간 또는 자연경관), 지역축제와 행사, 지역 문화상품을 포함한 문화산업과 생산 기반 등이 포함된다. 이들을 포괄한 지역문화자원의 범주는 <표 1>과 같이 역사·전통문화, 공연·문예문화, 지식·학습·독서·생활문화, 대중·여가·축제문화로 대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도서관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등과 함께 지식·학습문화, 독서문화, 생활·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시설이다.

2. 도서관의 정체성과 지역문화발전

도서관이 지역문화발전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해명하려면 그 정체성을 재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교육(기본)시설로 인식되는 학교 및 대학도서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거나 공공도서관 범주에 속하는 장애인도서관, 연구지원시설인 전문도서관과 달리 공공도서관의 정체성과 책무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먼저 여러 실정법령에 규정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과 관련된 조문을 발췌·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즉, 「문화예술진흥법」을 비롯한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자치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기반)시설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민편의시설, 공중이용 및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한 반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시행령」은 교육기본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일부 법령에서 공공도서관을 생활편의(공중)시설로 분류한 경우는 이용자인 지역주민 입장을 반영한 것인데 비하여 문화(기반)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규정한 경우는 기능 내지 역할의 측면에서 분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므로 객관적 논거를 빌어 그 정체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도서관법」, 「평생교육법」이 대표적이다. 2014년 1월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2354호)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 다는 「도서관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른 도서관 등을 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도서관이 ‘대중의 정보이용, 조사연구, 학습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경우, 그 정체성은 문화시설이다. 또한 「도서관법」(법률 제11310호) 제1조(목적)가 “...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자료제공, 정보격차 해소, 평생교육 증진을 통

1) 「도서관법」 제2조(정의) 제1항은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문화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법」(법률 제 12339호) 제2조(정의) 제2호2)에서 규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도서관을 정의한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2〉 공공도서관의 법리적 정체성 비교

법령 (조문)	법령에 규정된 주요 내용과 근거	공공도서관의 정체성			
		문화(기반) 시설	교육(기본) 시설	사회복지 시설	편의(공중) 시설
도서관법 (제1조)	이 법은 ...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 ... 등 설치·관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교육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 도서관 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	주민편의시설 은 ... 도서관 , 주차장 ... 등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3. " 문화시설 "이란 ...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 「 도서관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	②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 문화원· 도서관 등 다른 문화시설 과 협력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0. 교육연구시설 바. 도서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 도서관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도서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2)	별표 2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				■

요컨대 모든 공공도서관의 법리적 정체성은 지역문화(기반)시설이다. 그럼에도 교육(학)

- 2)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4호)

계, 교육지원청과 적지 않은 사서직은 여전히 ‘공공도서관 =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모든 ‘공공도서관 = 문화시설’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과 생각이 같으면 논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용하는, 소위 편향동화(biased assimilation)가 지배하고 있다. 환언하면 자신이 수용하기 싫은 주장을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불인정 내지 선택적 편향 동기’가 강하다. 그러나 편견을 전제로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내려놓지 않는 한 공공도서관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인식될 수 없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이 문화기반시설인 이상, 수행하는 업무를 기반으로 서비스 권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에 「도서관법」 제28조의 법정 업무와 다양한 문화스펙트럼(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 여가문화)을 연계한 <표 3>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책무에 논거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공공도서관의 법정 업무와 지역문화 스펙트럼의 상관관계

「도서관법」 제28조(업무)	지역문화 스펙트럼				
	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	여가문화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	■	■	□	□
2. 공중에 필요한 정보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	■	□	-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	■	□	□
4. 강연·전시·독서회, 문화행사·평생교육 관련행사 주최·장려	□	■	■	■	□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	■	■	□	-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	■	■	□	-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	□	□	□

■ : 직접적 관계, □ : 간접적 관계

첫째, 공공도서관의 핵심업무에 속하는 장서개발(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제공서비스, 독서생활화 계획과 실시,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상호대차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분관 설립·운영은 지역사회의 지식문화(지식정보 습득, 인문정신문화 강화, 교양수준 제고, 지적인 삶의 영위 등을 통한 민주시민성 함양과 고품격 사회 구현), 독서문화(풍부한 독서자료 활용, 대출 및 열람서비스, 독서지도, 독서력 증대,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등을 통한 독서도시 브랜드화), 학습문화(인터넷 및 정보검색 지원, 도서관이용 지원, 취업 및 창업정보 제공, 숙제지원서비스, 보고서작성 지원서비스 등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 등)와 직결되므로 이들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서비스와 행사(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문화행사의 주최와 장려)는 지역사회에 독서문화(독서동아리, 독서토론회 등을 통한 독서력 증대 및 독서분위기 확산), 학습문화(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의 생활화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 생활문화(취미, 오락, 여가 등과 관

련된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유무형 생활문화 향유권 보장)와 밀접하므로 이를 통하여 지역 문화 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하며, 그 결과가 지식문화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 외에 강연회,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는 지식문화 발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은 핵심업무 및 각종 프로그램서비스 외에도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프로젝트를 주도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관광문화의 발굴, 고증과 복원, 확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또한 다른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이나 복지시설과 연계·협력하여 도서관 및 자료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식·독서·생활문화를 진작시키고 여가(또는 탐방)문화 발전과 연계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와 한계

오랫동안 도서관 현장과 학계는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의 공공재 및 기반시설로 인식하여 왔다. 이러한 인식 자체는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가치나 중요성을 논증하고 지역사회에 설명하는데 매우 소홀하였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 학술연구나 현장자료는 투입물과 산출물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을 뿐, 그 성과 및 영향지표를 대변하는 지역문화발전 기여도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모든 공공도서관의 법정 업무는 <표 3>과 같이 다양한 문화스펙트럼과 상의적 수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실제 수행업무를 대상으로 지역문화발전 기여도를 평가하고 한계를 도출해야 전략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가 어떤 인적 및 물적 서비스로 나타나며, 그것이 지역문화(지식, 독서, 학습, 생활·대중, 여가·관광)의 발전이나 진흥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지를 개략적으로 평가하면 <표 4>와 같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이유와 한계를 다각도로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개발과 보존관리의 경우, 자료예산 및 수장공간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향토·역사자료 등 소급자료발굴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둘째, 자료이용서비스의 경우, 웹으로 신착자료를 안내·홍보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목차·작가소개·리뷰 등)가 누락된 서지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종 생활정보(건강, 경제, 법률, 여가 등)의 제공, 이동성 제약을 감안한 아웃리치서비스, 학생 과제지원서비스, 장애인 택배·낭독서비스 등도 부실하다.

셋째, 전통적 교육지원 기능인 정보해득력 교육(도서관 및 자료이용의 지도·지원, 인터넷 활용교육, DB검색 교육 및 지원)은 대체로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다.

넷째, 가장 중시해야 할 영역 중의 하나인 독서관련 업무(독서촉진·장려, 독서운동, 독서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4호)

〈표 4〉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도 평가

영역	세부 업무 및 서비스	지역문화발전 기여도				
		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	관광문화
장서개발과 보존	신간 확보	▲	▲	▲	×	-
	소급(향토)자료 발굴	×	×	×	×	×
	체계적 보존관리	▲	▲	×	-	×
자료이용 서비스	신착자료 안내(홍보)	▲	▲	▲	×	-
	대출·열람·복사	●	●	●	▲	-
	참고정보 질의응답	●	●	●	▲	-
	상호대차·원문제공	▲	▲	●	▲	-
	생활정보(건강, 경제, 법률, 여가 등) 제공	×	×	×	×	×
	아웃리치서비스	▲	▲	×	×	-
	아동 동화구연 등	▲	▲	▲	-	-
	과제(숙제) 지원	×	×	×	-	-
정보해독력 지원	장애인서비스(택배, 낭독 등)	×	×	×	-	-
	도서관 및 자료이용 지도·지원	▲	▲	▲	▲	▲
	인터넷 활용교육	▲	▲	▲	▲	▲
독서관련 업무	DB 검색교육 및 지원	▲	▲	▲	▲	-
	독서촉진(장려), 독서운동	▲	▲	▲	▲	-
	독서교육과 독서지도	▲	▲	▲	▲	-
프로그램 서비스	독서회 조직·운영과 프로그램 제공	▲	▲	▲	▲	-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제공	▲	▲	▲	▲	×
	각종 자료 전시 및 지원	▲	-	▲	▲	×
시설·공간 제공	문화행사 주관·지원	×	-	×	×	×
	일반열람실 제공	▲	▲	●	▲	-
	행사장소 제공(대여)	▲	▲	▲	×	×
	커뮤니티 공간 제공	-	×	×	×	×
기타	정보기기(각종 설비) 지원	×	×	×	×	-
	문화·관광자원 개발 참여	×	-	-	×	×
	다른 기관(문화·복지·행정)과 협력·연대	×	×	×	×	×
	재능기부서비스	×	×	×	×	-

● 우수, ▲ 보통, × 미흡, - 무관

교육과 지도, 독서회 조직·운영, 독서프로그램서비스 등)는 다른 문화·독서시설이나 단체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서비스의 경우,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평생학습관 및 문화시설과 비교할 때 특징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각종 자료 및 문화행사의 전시·주관·지원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여섯째, 시설·공간제공의 경우, 일반열람실 및 행사장소 제공이나 정보기기(각종 설비) 지원은 보통 수준인 반면에 회합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제공하는 사례는 드물다.

일곱째, 기타 지역사회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여한 실적이 거의 없고, 다른 기관(문화·복지·행정)과 협력·연대하거나 재능기부서비스를 통하여 도서관 존재가치나 자료서비스 역량을 높이는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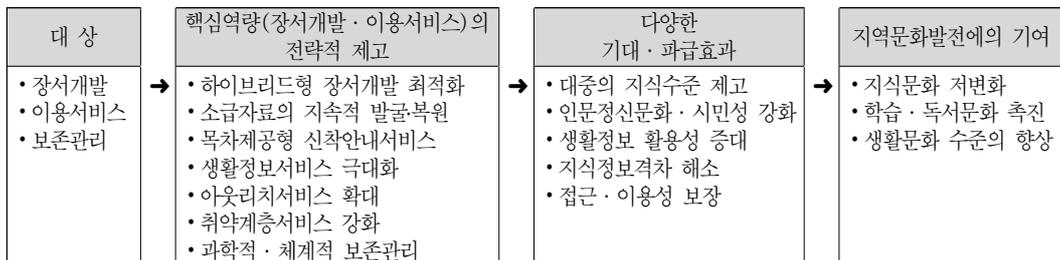
Ⅲ.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방안과 전략

모든 공공도서관은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각종 업무가 다양한 지역문화(지식, 독서, 학습, 생활, 여가)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할 때 존재 및 가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기여도는 낮은 편이므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핵심역량(장서개발·이용서비스)의 전략적 제고

공공도서관의 보편적 핵심업무는 장서개발, 자료정리, 이용서비스, 보존관리이다. 그 가운데 자료정리는 이용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영역이므로 충실한 장서개발과 보존관리를 전제로 최적 이용서비스를 제공할 때 핵심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학습·독서문화, 생활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발전 기여전략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장서개발의 최적화, 소급(향토·역사) 자료의 지속적 발굴과 복원, 신착안내를 위한 목차제공서비스와 노출력 강화, 생활정보(건강, 경제, 법률, 여가 등) 서비스의 극대화, 아웃리치서비스 및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주민) 서비스 강화, 과학적·체계적 보존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장서관리 및 서비스 역량이 제고될 때 대중의 지식수준 제고, 인문정신문화 및 민주시민성 강화, 생활정보 활용성 증대, 지식정보격차 해소, 당대 및 후대의 접근·이용성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때 지식문화 저변화, 학습·독서문화 촉진,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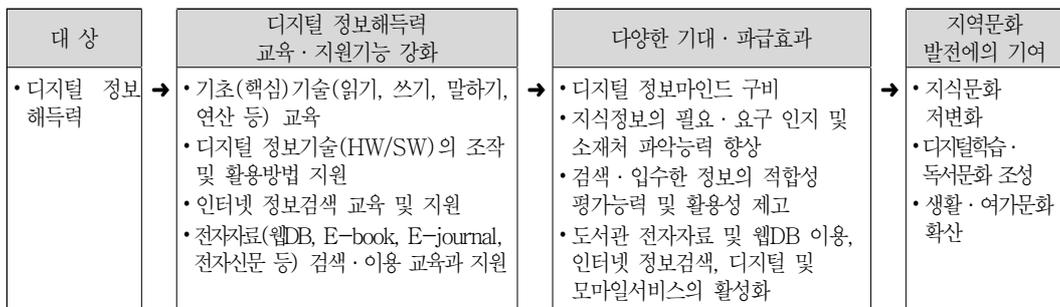
<그림 1> 공공도서관의 핵심역량 제고와 지역문화발전 기여

요컨대 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주민이 공인하는 지식정보센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이브리드형 장서개발의 최적화, 지속적인 소급자료 발굴·복원, 신착자료 목차제 공서비스 및 노출력 강화, 생활정보서비스 극대화, 취약계층 아웃리치서비스 강화, 보존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이들의 시너지 효과가 지속적일 때 지역문화발전(지식문화 저변화, 학습·독서문화 촉진, 생활문화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

2. 디지털 정보해득력 교육·지원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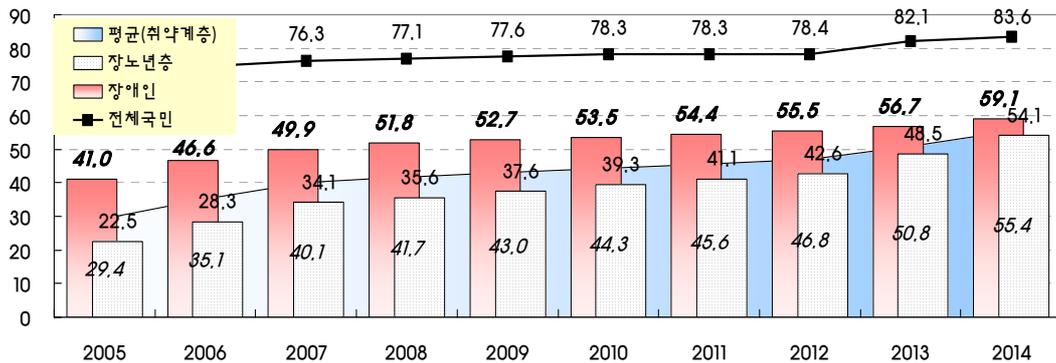
2003년 유네스코는 프라하 선언(Prague Declaration)에서 21세기 ‘생존해득력’을 기초 또는 핵심기능(읽기, 쓰기, 말하기, 연산) 해득력, 컴퓨터 해득력, 미디어 해득력, 원격교육·가상 학습·문화적 해득력, 정보해득력으로 범주화하면서 디지털 정보해득력(digital information literacy)³⁾을 가장 중시하였다(Horton 2007, 3). 즉, 미래 삶에는 기초 및 디지털 정보기술을 이용한 지식정보의 필요성 인지, 소재처 파악, 검색·입수한 지식정보의 적합성 평가, 그리고 활용능력 극대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해득력은 지역문화 스펙트럼의 모든 하위 구성요소(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 여가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정보해득력이 강화되면 인터넷 및 전자매체, 모바일 기기의 활용성이 높아져 지식문화 및 학습문화가 촉진되고, 그것에 기초한 생활문화, 여가문화, 독서문화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2>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정보해득력 교육과 지역문화발전 기여

3) 이 용어는 ‘정보문해, 정보활용(또는 이용)능력’ 등으로도 지칭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가 “문자해득교육(문해교육)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2006년 「도서관법」 제2조 제3호는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정보해득력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情報와 識字(literacy)를 합성한 ‘information literacy’는 정보활용(이용)의 전단계인 필요성·요구의 인지, 소재처 파악, 접근·검색 등의 능력도 내포하므로 정보활용(이용)능력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더구나 정보문해의 경우, 문해 대상이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문해 그 자체가 ‘독서, 글자의 인식과 이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 책, 글자가 중첩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디지털 정보해득력 제고를 통한 지역문화발전 기여방안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즉, 공공도서관은 아날로그 시대의 문맹퇴치, 즉 문자해득력 교육을 주도하여 왔듯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해득력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 입각하여 지역대중을 위한 기초·핵심기술(읽기, 쓰기, 말하기, 연산) 및 디지털 정보기술(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조작·활용) 능력에 대한 실용교육을 전제로 인터넷 정보검색·이용, 전자자료(웹DB, E-book, E-journal, 전자신문 등) 검색·이용 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최근 10년간(2005-2014) 전국민 대비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을 비교한 <그림 3>4)을 보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므로 양대 계층을 위한 디지털 정보해득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 결과가 지역대중 및 취약계층의 접근·이용역량을 높일 때 디지털 정보마인드 구비, 지식정보의 필요·요구 인지 및 소재처 파악능력 향상, 검색·입수한 정보의 적합성 평가능력 및 활용성 제고, 도서관 전자자료 및 웹DB 이용, 인터넷 정보검색, 디지털 및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효과가 사회전반으로 파급될 때 지식문화 저변화, 디지털 학습·독서문화 조성, 생활·여가문화 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3> 전국민 대비 취약계층(장애인,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추이 비교

요컨대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디지털 정보센터, 디지털 정보게이트웨이, 정보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중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 능력과 기술활용 교육을 전제로 인터넷 및 전자자료 검색교육과 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 기대효과가 원심력으로 작용할 때 지역문화발전(지식문화 저변화, 디지털 학습·독서문화 조성, 생활·여가문화 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다.

4)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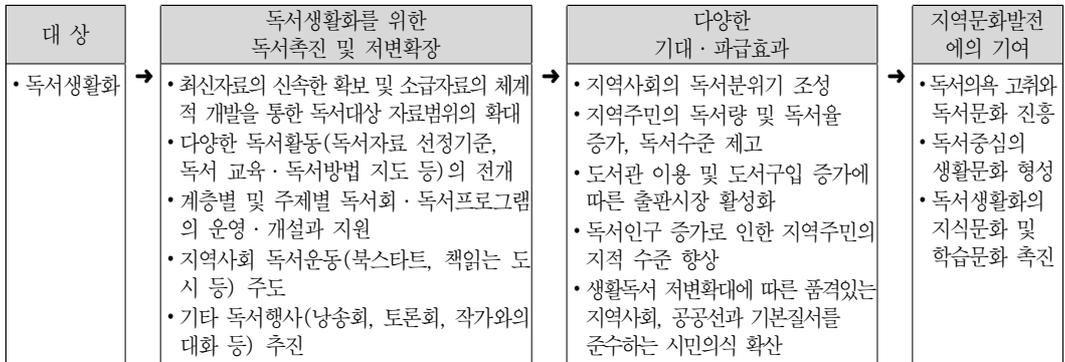
3.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촉진 및 저변확장

독서는 인간의 조건이다. 이 명제의 행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끊임없이 독서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1946년에 민주문화사를 설립하여 출판업을 시작하였고 1980년에 교보문고 창업한 신용호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문구를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명언은 진리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책과 독서의 공간은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 부지기수로 많고 실제로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서 독서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촉진·보장하는 최적 공공재 공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료로 독서할 수 있는 통시적 및 공시적 지식정보가 집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지도를 비롯한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독서자료 확보와 대출·열람서비스, 독서프로그램 및 독서회 운영 등이 지역사회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경우에 「독서문화진흥법」(법률 제11690호) 제2조(정의) 제1호에 규정된 독서문화(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적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를 지원·진작하고 지식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독서촉진 및 저변확장 전략을 지역문화발전과 연계·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즉, 공공도서관은 종래의 독서활동 성찰을 전제로 최신자료의 신속한 확보와 소급자료의 전략적 개발을 통한 독서자료 범위의 확대, 다양한 독서지원(독서자료 선정기준 마련, 독서교육 및 독서방법 지도, 독후감상문 작성 지원 등) 활동, 계층별 및 주제별 독서회와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역 독서운동(북스타트, 책 읽는 도시, 직장 책임기) 주도, 기타 독서행사(독서 백일장, 작가와의 대화, 낭송회, 독서토론회 및 세미나 등) 추진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독서촉진 역량이 상승곡선을 그릴 때 독서분위기가 조성되고, 지역주민의 독서율·독서량이 증가하고 독서수준이 제고되며, 도서관 이용 및 도서구입 증가에 따른 출판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독서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의 지적 수준이 향상되고 생활독서의 저변확대가 초래하는 품격있는 지역사회, 사회적 공공선과 기본질서를 준수하는 민주시민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사회문화적 기대효과인 독서생활화가 공공도서관의 핵심업무로 자리매김할 때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문화 진흥, 독서중심의 생활문화 형성, 독서생활화의 지식문화 및 학습문화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독서지원과 독서활동의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독서용 장서개발 강화, 다양한 독서활동 전개, 독서교육·지도력 강화, 맞춤형 독서회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역 독서운동 주도 등이 필요하다, 그 파급효과가 확산적일 때 지역문화발전(독서문화 진흥, 독서중심 생활문화 형성, 지식·학습문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4> 공공도서관의 독서촉진 및 저변확장과 지역문화발전 기여

4.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제공서비스의 최적화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센터를 모태로 하는 평생교육 산실 및 문화향유 거점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배후적 동기는 지식·학습·생활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 즉 가장 방대한 지식정보를 집적·제공하기 때문이지만, 직접적 이유는 다양한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제공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서비스가 최적성을 담보할 경우에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제1호에 규정된 ‘평생교육’(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적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자주적 학습문화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생활문화’(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표 5> 시도별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대출책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R ²	Durbin-Watson	F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332	.251	-	5.313	.000	.559	1.756	8.227
소장책수	.438	.123	.693	3.573	.003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	.377	.000	.000	2.938	.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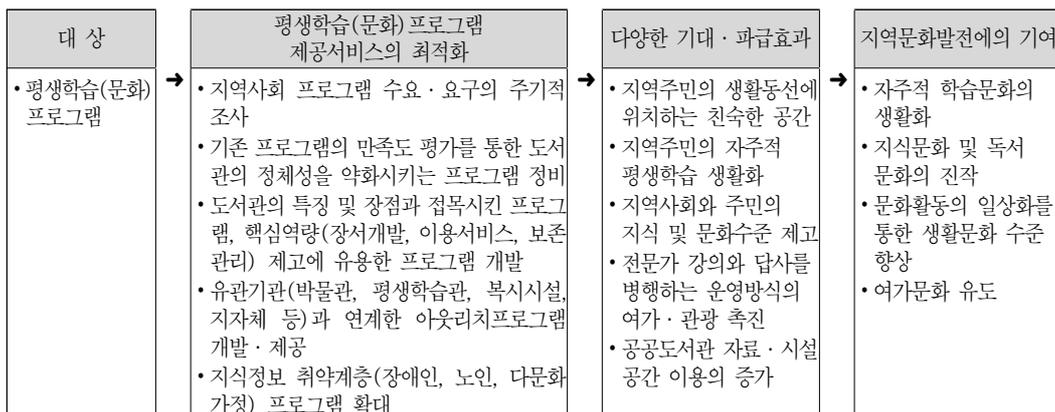
회귀방정식(Cb) = 1.332 + 0.438Co + 0.377Lp

(Cb : 대출책수, Co : 봉사대상인구 1인당 소장책수, Lp :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참가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공공도서관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을 다른 평생교육 및 문화시설 등과 비교하면 대동소이하다. 환언하면 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과 핵심역량을 최대한 반영·제공하여 소장자료 이용서비스(대출, 열람, 상호대차 등)를 증가시키는데 실패하고 있

다. 2014년에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자료서비스를 대변하는 대출책수를 종속변수로, 6개 변수(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참가자수,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수,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 인구 1인당 소장책수,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인구, 자료실 이용자수)를 독립변수로 삼아 회귀분석한 연구에서 <표 5>처럼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참가자수가 아닌 소장책수 및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수가 자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 방증하고 있다(윤희운 2014, 12).

이에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서비스의 최적화 전략을 지역문화발전과 연계·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즉,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수요 및 요구에 대한 주기적 조사, 기존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기대효과 평가, 도서관의 정체성을 약화 또는 훼손하는 프로그램 정비, 도서관의 특징 및 장점과 접목시킨 프로그램 개설, 핵심역량(장서개발, 이용서비스, 보존관리) 제고에 유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다른 유관기관(박물관, 문화원, 평생학습관, 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개발·제공, 지식정보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전제로 최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의 무게중심이 지식정보서비스에 있을 때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동선에 위치하게 되고, 지역주민의 자주적 평생학습이 생활화되어 지식 및 문화수준의 제고로 이어지며, 운영방식 또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처럼 전문가 강의와 답사가 병행될 때 여가·관광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자료·시설공간 이용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자주적 학습문화의 생활화, 지식문화 및 독서문화 진작, 문화활동의 일상화를 통한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 여가문화 유도 등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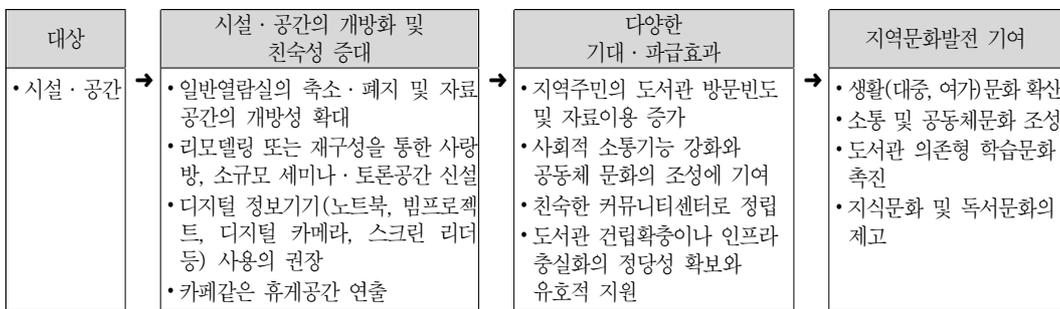
<그림 5>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최적화와 지역문화발전 기여

요컨대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학습 산실 및 문화향유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프로그램 정비, 핵심역량을 제고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 프로그램 확대, 유관기관과 연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제공 등에 치중해야 한다. 그 기대효과가 확산적일 때 지역문화발전(학습문화의 생활화, 지식·독서문화 진작, 생활·여가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5. 시설·공간의 개방화 및 친숙성 증대

모든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은 시설인 동시에 「국가배상법」(법률 제9803호)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public institution)인데, 그 의미는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의 합집합을 말한다. 이를 사용주체로 세분하면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공용 영조물(교도소, 시험장 등)과 대중을 위한 공공용 영조물(도서관, 박물관, 학교 등)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영조물은 설비에 착안한 정태적 개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법률 제12738호) 제144조는 영조물 대신에 ‘공공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6〉 공공도서관 시설·공간의 개방화 및 친숙성 증대와 지역문화발전 기여

이러한 영조물 내지 공공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은 문화기반시설이므로 사무공간, 귀중본서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 그 조건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무료 개방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공공도서관이 일반열람실은 무료 개방하고 세미나 등 행사공간은 유료 개방하며, 각종 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련공간을 확보하거나 개방하는데 인색하다는 사회적 불만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학습을 위한 일반열람실, 자료중심 서비스 공간, 세미나 공간, 휴게시

설 제공 외에도 IFLA가 「공공도서관 서비스 지침」(Koontz & Gubbin 2011, 9)에서 제시한 ‘공공장소 내지 회합장소로서 지역사회의 사랑방’(drawing room) 역할을 수행할 때 소통기능을 강조하는 생활문화, 지식·학습문화, 독서문화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시설·공간의 개방화 및 친숙성 전략을 지역문화발전과 연계·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즉, 모든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존재이유는 지식정보서비스에 있으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대표하는 일반열람실의 축소 내지 폐지, 자료공간의 개방성 확대, 리모델링 또는 재구성을 통한 사랑방 공간의 확보·제공, 소규모 세미나·토론 공간 신설, 디지털 정보기기(노트북, 빔프로젝트, 디지털 카메라, 스크린 리더 등) 지원, 카페같은 휴게공간 연출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 전제될 때 지역주민의 방문빈도가 증가하고 자료이용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사회적 소통기능이 강화되어 공동체 문화의 구성에 기여하고, 친숙한 커뮤니티센터로 자리매김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건립 확충이나 인프라 충실화를 요구할 때 지원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의 중장기적 편익은 생활문화 확산, 소통 및 공동체문화 조성, 학습문화 촉진, 지식·독서문화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친숙한 지식공간 및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열람실의 축소 내지 폐지, 자료공간의 개방성 확대, 사랑방과 소규모 토론공간의 확보·제공, 디지털 정보기기의 적극 지원, 카페같은 휴게공간 연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파급력이 사회전반에 미칠 때 지역문화발전(생활문화 확산, 소통 및 공동체문화 조성, 학습문화 촉진, 지식·독서문화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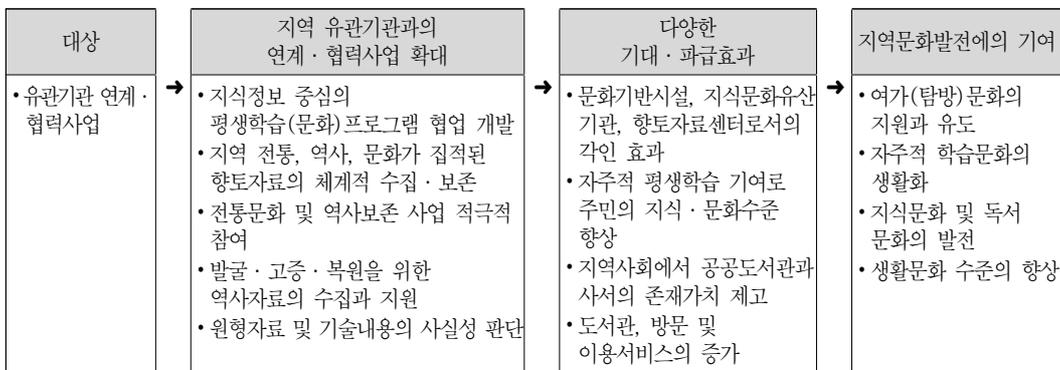
6.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 확대

모든 지역사회에는 다종다양한 지식문화시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식정보서비스 측면에서는 지식정보센터, 인터넷 정보유통 측면에서는 디지털 정보게이트웨이, 문화인프라 관점에서는 지역문화기반시설, 교육학습적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시설, 소통공간적 측면에서는 커뮤니티센터, 지식문화재 관점에서는 문화유산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의 역설적 함의는 어떤 공공도서관도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체성의 내면화가 쉽지 않고, 따라서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미 일반화된 외주, 아웃소싱, 부분위탁, 협력사업 추진 등이 대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이 추진한 협력사업의 내용이나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부연하면 내부 업무를 외부 이해당사자와 협력하는 사례는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의 개설·운영, 지역 독서운동 등에서 다수 포착되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문화발

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식정보 추적의 전문가인 사서와 방대한 서고공간에 축적된 통시적 장서를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지원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여가(탐방)문화, 생활(대중)문화, 지식·학습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확대 전략을 지역문화발전과 연계·제시하면 <그림 7>과 같다. 즉,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 중심의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업, 전통·역사·문화가 집적된 향토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 전통문화 및 역사보존 사업(문화축제, 문화벨트 조성, 역사공간 복원, 거리 및 마을 조성, 유적지 브랜드화, 향토 관광상품 개발 등) 참여, 발굴·고증·복원을 위한 역사자료의 수집과 지원, 원형자료 및 기술내용의 사실여부 판단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식문화유산기관, 향토자료센터로 각인될 수 있고, 자주적 평생학습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의 지식·문화수준이 높아지며, 지역사회에서 도서관과 사서의 존재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방문 및 이용서비스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때 여가·탐방문화의 지원과 유도, 자주적 학습문화의 생활화, 지식·독서문화 발전,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7> 공공도서관의 유관기관 연계·협력사업 확대와 지역문화발전 기여

요컨대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지식문화유산기관, 향토자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의 협업 개발, 전통·역사·문화가 집적된 향토자료 개발과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역사문화 보존사업 참여와 발굴·고증·복원용 자료의 지원 등과 같은 전략적 연계·협력의 확대가 중요하다. 그 나비효과가 현실화되어야 지역문화발전(여가·탐방문화 유도, 학습문화의 생활화, 지식·독서문화 발전,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이 '인본주의에 입각한 지역사회의 문화적 성숙'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여 문화선진국으로 부상하려면 지역문화기반시설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논지에 입각하여 지역문화와의 상의적 수수관계를 해명하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여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공인하는 지식정보센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이브리드형 장서개발의 최적화, 소급자료의 지속적 발굴·복원, 신착자료 목차제공서비스 강화, 생활정보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아웃리치서비스 강화, 체계적 보존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이들의 상호작용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때 지역문화발전(지식문화의 저변화, 학습·독서문화 촉진,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지역대중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해득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서중심의 기초능력과 디지털 정보기술 활용능력에 대한 교육을 전제로 인터넷 및 전자자료의 검색·이용 교육과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그 기대효과가 원심력으로 작용할 때 지역문화발전(지식문화의 저변화, 디지털 학습·독서문화 조성, 생활·여가문화 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공공도서관은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촉진 및 저변확장에 치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독서용 장서개발 강화, 다양한 독서활동 전개, 독서교육·지도력 강화, 맞춤형 독서회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역 독서운동 주도 등이 필요하다. 그 파급효과가 확산적일 때 지역문화발전(독서문화 진흥, 독서중심 생활문화 형성, 지식·학습문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공도서관은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제공서비스를 최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프로그램 정비, 핵심역량을 제고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 프로그램 확대, 유관기관과 연계한 아웃리치프로그램 제공 등에 치중해야 한다. 그 기대효과가 확산적일 때 지역문화발전(자주적 학습문화의 생활화, 지식·독서문화 진작, 문화활동의 일상화를 통한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 여가문화 유도)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은 시설·공간의 개방화 및 친숙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열람실의 축소 내지 폐지, 자료공간의 개방성 확대, 사랑방·소규모 토론공간의 확보·제공, 디지털 정보기기의 적극 지원, 카페형 휴게공간 연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파급력이 사회전반에 미칠 때 지역문화발전(생활문화 확산, 소통 및 공동체문화 조성, 학습문화 촉진, 지식·독서문화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도서관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의 협업 개발, 전통·역사·문화가 집적된 향토자료 개발과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역사문화 보존사업 참여와 발굴·고증·복원용 자료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 나비효과가 현실화될 때 지역문화발전(여가·탐방문화의 유도, 학습문화의 생활화, 지식·독서문화 발전,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명제가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설득력을 담보하려면 ‘투입-산출’의 고답적 사고체계를 ‘투입-산출→성과→영향’으로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배타적 핵심역량(장서개발, 이용서비스)의 제고, 디지털 정보해득력 교육·지원 강화, 독서촉진과 저변확장을 통한 생활독서화 촉진,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의 최적화, 시설·공간의 개방화 및 친숙성 증대,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확대에 소홀하면서도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참고문헌

- 노영희, 강정아. 2014.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67-93.
- 윤희윤. 2014. 서울시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5-25.
- 장덕현. 2014.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173-192.
- 장우권. 2009.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콘텐츠의 관리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271-292.
- Horton, Forest Woody Jr. 2007. *Understanding Information Literacy: A Primer*. Paris: UNESCO.
- Koontz, Christie & Barbara Gubbin, eds. 2011. *IFLA Public Library Service Guidelines*, 2nd ed. The Hague: IFLA.
- Tylor, E.B. 1871.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New York: Gordon Press. <<https://en.wikipedia.org/wiki/Culture>> [cited on 2015. 8. 10].
- UNESCO. 2007.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Retrieved(Oct. 14).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17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cited on 2015. 7. 20].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 Hyun. "A Research on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 A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173-192.
- Chang, Woo-Kwon. 2009.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Practical Use Program of Local Cultural Contents in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271-292.
- Noh, Younghee & Jung-Ah Kang. "A Study on Vitalization Methods of Local Cultural Contents in the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67-93.
- Yoon, Hee Yoon. 2014. "The Plan for Activating Collection Services of Public Library in Seoul Metropolit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5-25.